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부활절 후 제1주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0(통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 앞에 실망치 말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주십시오.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의 간구에 따스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 새벽의 약속을 주시고 떨리는 손과 마음을 붙잡아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친 어깨를 감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134. 부활절(2)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오재환 선생 II. 한상의 장르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94(통10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함께

성경봉독 I. 마5:3-12 인도자

II. 빌3:7-11 윤수진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말씀의 부활 김재홍 목사

II. 내가 바라는 것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연 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정소연 외 3인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답게 기쁘고 당당하게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꿈꾸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돌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의 주머니를 채우려 마음 쓰며 살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며 살겠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진실한 고백으로 만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부활의 새벽이 가까웠음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멘.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정원석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하진채 학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안홍숙 권사

4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임주빈 백혜숙 김현영 최현옥
	헌금위원	윤석철 안홍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맨발의 성자 이현필

전북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남한산성 쪽에서 풍악산 솔밭을 향해 오른다. 산 밑인데도 양지바른 언덕이 나온다. 그 언덕에 오래전부터 있던 허름한 한옥들과 양옥집들 예닐곱 채가 어우러져 있다. 동광원이다. 이 공동체 마을은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이현필의 제자들이 사는 여성 수도원이다. 이곳에 24명의 여성들이 살고 있고, 마을 아래의 독신 남성 수도자들까지 합하면 35명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살고 있다. 대부분이 70대가 넘는 노인들로 이곳에선 여성 수도자를 ‘수녀’가 아닌 ‘언님’이라 부른다. 언님은 언니의 높임말로 순우리말이다. ………

이현필은 기도하러 숲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나무가 되고 바위가 되어버렸다.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채 기도하던 그는 뽕뽕 얼었고 머리 위로는 하얀 서리가 내렸다. 아침이 되면 햇살을 받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새가 나아와 목석인 듯 쪼아댔다.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었다. 이현필은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 먹을 몫이 줄어든다”며 굶기를 그야말로 밥 먹듯 했다. 그래서 배는 늘 등가죽에 붙어 있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행색이었다. 그런 그가 눈이 가슴까지 쌓인 어느 날 새벽에 남몰래 길을 나섰다. 3일 동안 먹은 것이라곤 없는 상태였다.

당시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금남이라는 제자는 행여 이현필이 눈발에 쓰러지거나 앓을까 염려되어 다른 동료 한 명과 몰래 뒤를 밟았다. 눈이 너무도 많이 와 어디가 평이고 어디가 벼랑 끝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현필은 사뿐사뿐 날 듯이 나아갔다. 둘은 이현필의 발자국만을 밟으며 따라갔다. 이현필은 그렇게 오감산까지 무려 40여 리를 걸었다. 오감산 산막에서 홀로 수도 중인 제자가 눈 속에서 얼어 죽지 않았을까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몸소 눈발을 헤치고 그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이현필은 대중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영혼을 우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마치 살아 돌아온 예수님을 영접하듯 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회개했고,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고,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현필은 장성한 남성으로서 당연히 가질 여자를 안고 싶은 욕정을 놓았

고, 배불리 먹고 싶은 욕심을 놓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 눕고 싶은 마음을 비워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연약한 이의 고통을 대신해 십자가에 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에 통곡했다. 밤새 한데서 기도하느라 고드름처럼 뽕뽕 얼은 그의 모습에 언님들은 ‘갈보리 산’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 예수는 귀중하신 보배 피를 흘리사
구원받을 참 길을 열어 놓으셨느니라 / 갈보리 십자가는 저를 위함ियो

아, 십자가, 아, 십자가 / 갈보리 십자가는 저를 위함ियो

찬송을 하는 그들의 불을 타고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우리의 죄에 아파해 가슴에서 솟구치는 애통의 피였고, 그들의 젖값을 대신해 달게 받는 헌신의 피였다.

이현필은 이렇게 훈련시킨 언님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으로 향했다. 광주와 무등산 일대엔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 후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과 폐병 환자들이 굶주린 채 거리를 떠돌았고, 다리 밑에서 바람을 피하다가 얼어 죽는 이도 있었다.

이현필은 자신의 옷을 헐벗은 걸인들에게 쥐버리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다. 그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맨발로 눈 길을 걸어 탁발을 했고 고아와 걸인들을 먹였다. 이현필이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는 산중에서 감히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실은 그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이현필에게는 삶이 기도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예수의 발걸음이었다.

배부를 때 배고픔을 대비하고, 살아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이현필의 가르침이었다. 동광원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물도 전혀 남겨서는 안 된다. 특히 동광원의 신자들은 그토록 어려운 중에도 하루에 밥 한 끼씩을 따로 모아 그것으로 불쌍한 삶을 돕자는 ‘일작운동’까지 펼쳤다. 한국 사회의 최대 혼란기였던 6.25 전쟁 이후여서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언제나 철저한 규율을 따랐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

이현필은 폐결핵 환자들을 돌보다 걸린 후두결핵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대자연의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아, 사랑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지내다가 사랑으로 헤어지자!”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죽어갔다.

- 조현, 「울림」중에서

■ 마/음/으/호/워/는/글

냉이꽃 한 송이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냉이꽃 한 송이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제 속에서
거듭난 것들이 모여
논둑 밭둑 비로소 따뜻하게 합니다

참나무 어린 잎 하나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제 속에서 저를 이기고
거듭난 것들이 모여
차령산맥 밑에서 끝까지
봄이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서
거듭납니다
저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모여
이 세상을
아직 희망이게 합니다.

-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구명자 김훈동 유경순 김혜권 박창운 허정윤 배근수 김금순 안종일
 정현주 윤영원 이선희 이봉옥 임주빈 최현옥 장성호 정미경 곽다빈
 김도연 황지현

월정헌금:

권미정 김미순 박준규 서지영 이재문 김시영 백혜성 이경남 유형준
 김현미

감사헌금:

한상익 정영선 김병희 최문희 박은정 이하솔 이하람 김춘려 김정애
 박홍재 박영재 김재원

생일감사헌금:

김주현 김재광 구성실

녹색꿈 헌금:

이인섭 이정규 장혜숙 윤석철 무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박 영 희	박 성 실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이 소 순	이 은 옥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이 명 희	문 영 혜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정 숙	이 인 섭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심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김 재 량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유 영 남	원 인 해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임 수 연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정 영 선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명 희	송 양 진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배 삼 순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임 창 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자전거 동호회는 1시 30분에 교회 마당에서 모여 양평으로 출발합니다. 환경 동호회는 1시30분에 교회 마당에서 모여 창경궁으로 갑니다.
2. **기획위원회** : 오후 1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입니다.
3.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예수포럼이 이번 주 20일(월) 오후 6시에 한승헌 변호사님(감사원장 역임)을 모시고 열립니다.
4. **서울연회** : 제29회 서울연회가 2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22일(수)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5. **찬양제** : 5월 첫 주일(3일)은 교회 설립 101주년입니다. 이날 오후에 선교회별 찬양제를 엽니다. 참가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결혼** : 한훈식 씨와 권채영 씨의 결혼예식이 4월 25일(토) 오후2시에 강남 목화 웨딩문화원에서 있습니다.
7. **일일 농촌체험** : 사과나무 분양식이 25일(토) 음성 일신농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옥수수 심기가 27일(월), 5월 1일(금), 2일(토)에 흥천 동면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텔레비전 시청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에 하루 이틀정도 텔레비전을 끄시고 가족모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다음 주 : 빌립보 속)

* 설거지 봉사 : 곽상준 최경미 (다음 주 : 한상의 이준하)

새교우 소개

이우엘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